

러시아어의 *ДАТЬ* 'to give'와 주사의 문법화 현상

이희숙

(대구가톨릭대학교)

Rhee, Hy Sook. 2008. Grammaticalization of *ДАТЬ* 'to give' in Russian and *cwuda*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255-271.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new facts of linguistic processes using grammaticalization. It deals with general properties of grammaticalization and aims at a characterization of issues of how linguistic processes operate systematically within a particular language system. I consider the specific cases of grammaticalization with respect to the verb 'to give' in Korean and Russian.

주제어(Key Words): desemantization, serial verb, divergence, lexicalization, metaphor

1. 들어가는 말

음운적, 형태 통사적, 의미적인 언어 변화들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인간의 인지적 사유활동을 증명하는 언어의 사용의 부산물인 언어 변화를 언어학자들은 문법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문법이론들이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을 개별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문법화에서는 이 양자를 통합하여 범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설득력있는 설명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이성하 2000:25).

문법화는 임의의 특이한 언어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언어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예들을 중심으로 문법화 현상과 원리를 검토하면서 문법화를 활용하는 언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기할 것이다.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문법화에 관련된 문제와 특징들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 3장과 4장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дать* 'give'와 *주다*를 중심으로 각각의 언어 조직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변화양상들을 문법화 현상의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2. 문법화의 이론적 특성

문법화 이론에서는 통시적인 언어 현상을 간과하지 않고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시공을 통한 언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언어 현상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언어이론과는 달리 통시적 현상과 공시적 현상을 연계시킴으로서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Bopp, Humbolt, Gabelentz 등과 같은 19세기 언어학자들은 일찍이 통시적인 언어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 문법화 개념이 소개된 것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문법화란 명칭으로 언어현상이 최초로 설명된 것은 프랑스의 언어학자 Meillet에 의해서였는데, 그는 '문법형태의 진화'라는 논문에서 모든 문법요소들은 독자적인 어휘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문법요소들은 변화의 말기에 이르면 단순히 소멸되거나 혹은 음운요소로 남게 된다고 언급했다(Meillet 1912, 1948). 이렇게 문법화는 현 문법구조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 형태를 대체하는 신 형태를 탄생시키며, 그 결과 문법에 새로운 범주, 즉, 새로운 형태나 기능을 유입시킨다.

문법화는 기능적 범주와 같은 특별한 환경이나 형태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치사가 접속사로 발전되기도 하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원인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지시적 한정사가 정관사나 관계절 표지사로, 동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과생접사가 과거시제 표지로 변화를 거치기도 한다. 한편, 어휘가 문법화를 거쳐서 형태소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휘적 범주가 기능적 범주로 바뀔을 의미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어휘적 범주가 보다 더 문법적인 범주인 전치사, 접속사, 보문소, 접사로 발전하는 현상들이 문법화로 간주된다¹⁾. 아래의 예들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러시아어의 예이다:

¹⁾ Livio Gaeta(2007:45-47)는 'The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tells us that a lot of apparently messy structures are the result of very well motivated changes, which illuminate 'the way language users perceive the world around them and... the language they use to express it.'라고 언급했다.

- (1) a. круг 'circle' (N) > вокр уг 'around' (Prep)
 b. друг 'comrade/friend' (N) > друг друга 'reciprocal marker'
 Они ненавидели друг друга. 'They hated each other.'
 (Heine and Kuteva 2002:92)
 c. было + 동사 과거 > avertive 'was just about to do something but...'
 Машина было поехала, но... 'The car was just about to start, but...'
 d. буду: copula > future
 Я буду танцевать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I will dance tonight'
 e. у меня: locative > possessive
 У меня книга. 'I have a book' (Heine and Kuteva 2002:205)
 f. если: copula > if (conditional) есть + ли > если
 (Hopper & Traugott 1993)
 g. ся: reflexive marker > marker of reciprocity
 Наташа и Мария встретились. 'Natasha and Mary met'

문법화가 진행되는 경로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문법화는 구체적인 어휘형태나 구조에서부터 출발하여 무로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 Givon이 있다. 그는 의미적이며 음성적인 실체가 점진적으로 문법적 형태로 서서히 소실되어 최후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가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법화 현상을 아래와 같이 단일방향의 과정 (unidirectional cycle)으로 간주했다(1979): Discourse > Syntax > Morphology > Morphophonemics > zero. Givon의 단일방향의 순환 논리는 문법화가 진행되는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 경로에 일치하지 않는 언어적 변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²⁾

의미변화에 있어서 은유현상은 문법화의 기제로 흔히 거론되고 있다. Cabrera(1998)는 문법화 현상은 은유적 추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으며, Heine, Claudi and Hünemeyer (1991)는 은유적 추상화 과정의 위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²⁾ 이외에도 Hopper & Traugott(1993)은 문법화에 대해서 한 어휘와 어휘구조가 언어학적 환경에 노출되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다가, 일단 문법화가 진행되면,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부응하여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내용어 > 문법어 > 접어 > 파생접사.

- (2) Metaphorical Abstraction Hierarchy (Heine, Claudi and Hünnemeyer 1991:157)
 PERSON > OBJECT > PROCESS > SPACE > TIME > QUALITY

이러한 위계는 개념화 영역에서 PERSON을 지칭하는 어휘목록은 은유적 추상화를 거쳐 오른쪽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아래의 예들은 은유화 위계를 준수하면서 언어변화를 거친 문법화 현상의 예들이다:

- (3) a. English: back
 PLACE (back of) > TIME (some months back) > QUALITY (backwardness)
 b. Spanish: pie 'foot'
 PLACE (al pie de la colina 'at the foot of the hill') > QUALITY (entrar con buen pie 'to get off to a good start', nacer de pie 'be born lucky')
 c. Basque: begi 'eye'
 PROCESS (begira 'looking') > QUALITY (begiko 'pleasant', begiragarri 'worth seeing')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문법화는 사건의 어휘목록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문법화 현상에 의해서 언어에는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능적 범주들이 생성되고 새로운 구성요소들이 창조됨으로서 문법적 요소들이 풍부해진다.

3. 러시아어 *дать* 'to give'의 문법화

근래에 러시아 언어학계에서도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быть* 동사를 중심으로 시제의 단순화와 상체계의 확립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추석훈 2006, 정연우 2005, 등). 3장에서는 한국어의 동사 *주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러시아어 동사 *дать* 'to give'의 언어 변화 현상을 문법화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Дать*와 관련해 논의될 문법적 요소는 피동형동사 *данный*와 명령법 *дай*이다.

3.1. *Данный*

러시아어에는 동사의 어미 활용을 이용해 형용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형

태론적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파생된 단어들은 형동사(verbal adjective), 즉, 동사에서 출발한 형용사로 지칭되는 범주로서 일반적으로 분사(participle)라고 알려져 있다. 이 형동사에는 성, 수, 격, 시제, 태 등의 하위 범주가 있으며, 단어미형과 장어미형으로 분류되고, 술어적(predicative) 혹은 정어적으로(attributive) 사용되는데, 동사 *дать*로부터 형성된 *данный*는 피동형동사 과거형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발견된다:

- (4) Уроки данные учителем были интересны. '선생님에 의한 강의는 흥미로웠다.'
 Слово данное отцом было выполнено. '아버지에 의한 약속은 지켜졌다.'

3.1.에서는 위와 같이 피동형동사의 기능으로 사용되던 *данный*가 언어 변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범주로 사용됨을, 즉, 문법화가 일어났음을 주장한다. *данный*는 형동사의 형태를 취하면서 러시아어에서 지시적(deictic) 표현을 수행하는 지시대명사류(demonstratives)에 속하며, 관사(article)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어휘는 관사라는 문법적 범주가 없는 러시아어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법에서는 이러한 정관사적인 범주를 인정해야 한다.³⁾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와 러시아어에는 한정성(definiteness)을 표시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주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곧 *данный*의 언어변화 과정을 규명하는 문법화 문제와 연결된다.

동사 *дать*에서 파생된 *данный*는 자신의 고유 의미와 함께 한정성(definiteness)의 문법적 의미를 지닌 한정사(determiner)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a.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нный вопрос был обсуждён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According to him, the problem has been discussed in the meeting of committee.'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문제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었다.'
 b. Дума рассмотрела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Duma has examined this proposal.' '의회는 그 제안을 검토했다.'
 c.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комисс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готовы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At the moment there was not the prepared bill.'
 '그 당시 위원회에는 실제로 준비된 법안이 없었다.'

3) 지시적 표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данный*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피동형동사에는 *определённый*, *сказанный*, *указанный*, *известный* 등을 들 수 있다.

- d. Данный блог закрывается, но остается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архива.
 'This blog will be closed, but remain as archives.'
 '이 블로그는 폐쇄되지만, 고문서의 형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위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어의 данный는 영어에서는 this 혹은 the로, 한국어에서는 그나 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어의 данный가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지시대명사나 관사에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래 동사 'дать'의 피동형동사로 출발한 данный가 위 예문과 같은 종류의 텍스트에서는 더 이상 형동사로 인지되지 않고,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данный는 어떠한 원리에 부합하여 언어 변화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언어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의 인지에 의한 언어 운용의 변화, 즉, 우리의 인식체계의 변화가 언어에 투영된 것이 언어 변화이다.

이러한 언어 변화가 발생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우선 충분한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언어 요소의 옛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갈아 치우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 의한 강한 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력은 사용자의 빈도수에 의해서 얻어진다. 많이 사용되어야 새로운 형태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는 동사 дать의 동의어 단어로 вручать, отпускать, снабжать, выставлять, дарить 등이 올라 있다. 그리고 дать에 접두사가 첨가되어 형성되는 отдать, передать, выдать, издать 등의 유사어들도 있다. 동사 дать와 의미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동의어계열 동사들로부터 파생된 피동형동사 вручённый, отпущенный, снабжённый, выставленный, дарённый, отданный, переданный, выданный, изданный 등은 자신들의 일차적 어휘의미로 사용될 뿐, 지시대명사나 다른 기능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6) выданная книга '교부된 책'
 изданная книга '출판된 책'
 отданный долг '돌려준 빚'
 переданная книга '양도된 권리'
 вручённое письмо '넘겨준 편지'

Дать의 동의어계열 동사들은 의미가 дать보다 유표적이므로 дать와 비교해 볼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에서 파생된 피동형동사도 역시 данный와 비교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동의어계열의 행동사들로부터는 문법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данный보다 희박한 것이다. (6)의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дать의 동의어계열의 피동형동사는 지시대명사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빈도가 높은 данный만이 특별한 언어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 변화의 결과에 의해서 관사의 지위가 данный에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동사 дат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므로 언어 변화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 어떠한 문법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Данный는 피동형동사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данный 구문에서는 조격의 형태를 취한 행위자 논항을 수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예문 (7)에는 조격 논항이 존재한다:

- (7) Лекция данная профессором была отлична, '교수님에 의한 강의는 훌륭했다.'
 Слово данное отцом было выполнено, '아버지에 의한 약속은 지켜졌다.'

그러나 예문 (8)과 같은 구문에서는 조격의 행위자 논항이 첨가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8a)와 (8b)에서는 조격 논항이 첨가되었을 때 지시대명사의 의미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8c)에서는 행위자에 의한 구문이 아예 불가능하다.

- (8) a. *Д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вопрос был обсуждён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the problem has been discussed in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그 문제는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었다.'
- b. *Дума рассмотрела данное президентом предложение.
 'Duma has examined this proposal. ' '의회는 그 제안을 검토했다.'
- c. *На д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момент в в комисс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готовых законопроектв.
 'At the moment there was not the prepared ...'
 '그 당시 위원회에는 실제로 준비된 법안이 없었다.'
- d. *Д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блог закрывается, но остается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архива.

'This blog will be closed, but remain as archives.'

'이 블로그는 폐쇄되지만, 고문서의 형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조격 논항이 (7)에서는 허용되지만, (8)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данный* 가 (7)에서는 피동형동사로 기능하는데, (8)에서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Данный 의 구조적인 차이는 다음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9)에는 지시대명사 *этот*와 *данный* 류의 피동형동사가 연달아 배치되었는데, (9a)는 자연스런 구문인 반면, (9b)는 부자연스런 구문으로 문법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9b)의 부적격에 대해서는 동종의 문법적 요소들이 연결하여 잉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9a)에서는 지시대명사 + 형동사 구조인데, (9b)에서는 지시대명사 + 지시대명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 | | |
|-----------------------------------|------------------------------|
| (9) a. Эта выданная книга, | Эта переданная права, |
| Эта изданная книга, | Это вручённое письмо |
| b. *На этот <i>данный</i> момент, | *В эту <i>данную</i> минуту, |
| *В этом <i>данном</i> случае, | *Эта <i>данная</i> страна, |

이처럼 (9)에서는 *данный* 가 순수 형동사로 사용될 때와 지시대명사로 사용될 때 또 다른 지시대명사의 허용도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구조적 변화에 이어서 의미적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어휘 *данный* 는 원래의 의미가 상실된 탈의미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 단어는 의미에 있어서 문법화의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인 유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은유적 추상화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다.

동사 *дать* '주다'에서 도출되는 개념은 한정된 것, 일정한 것, 정해진 것, 규정된 것 등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개념은 수학 및 논리에서의 '주어진, 가정된, 작성된'의 의미와 연결되고, 이러한 수학적 정확성의 개념은 한정성의 이미지로 작용하여 이 이미지가 *данный* 의 의미속으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사적 변화와 의미적 변화는 *данный* 의 지시대명사로 의 문법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동사 *дать*에서 피동형동사 *данный* 가 파생되었고, 이 *данный* 는 의미전환을 거쳐 지시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 *данный* 에서는 형동사와 지시대명사의 분기

(divergence)를 찾아 볼 수 있다.⁴⁾

3.2. Давай

3.2에서는 *дать/давать*의 명령형이 다른 일반 동사를 보어로 택하여 1인칭 명령문, 이른바, 분석적 명령문(аналистический императив)을 생성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러시아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인칭 명령법(синтактический императив)은 동사의 어간에 *й те, -ь, ите*를 첨가해 형성한다. 동사 *дать*도 아래 예문처럼 자신의 2인칭 명령형 *дай/давай*를 지닌다. (10a)는 동사 *дать*의 존칭명령문, (10b)는 비존칭명령문이다.

- (10) a. *Дай те мне соль.* 소금을 주세요.
- b. *Не дай товарищу карандаш.* 친구에게 연필을 주지 말아라.

아래 예문 (11)은 *давай*가 동사원형 혹은 직설법 1인칭을 취하여 1인칭 명령문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는 (10)과 같은 문장을 2인칭 명령문(синтактический императив), (11)과 같은 문장을 1인칭 명령문(аналистический императив)이라 부르기로 한다.

- (11) a. *Давай одеваться.* 옷을 입자.
- b. *Давай выпьем.* 마시자.

*Да(ва)ть*는 크게 2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제1 의미는 주다 'to give'로서 행위자의 활동, 물체의 이동, 그리고 물체를 전달받는 사람과 관련된 상황을 기술할 때 사용된다. 제2 의미는 보다 추상적인 'causation'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예문 (12)는 'to give'의, (13)은 'causation'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 (12) *Иван дал мне ключ от шкафа.* '이반은 나에게 장 열쇠를 주었다.'
- (13) *Иван не дали говорить.* '그들은 이반이 말하게 하지 않았다.'

⁴⁾У меня нет данных, чтобы судить об эт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예서처럼 *данный*가 명사로 사용된 구문에서는 *данный*의 어휘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11)에서 처럼 사용되는 1인칭 명령문과 문법화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 (11)의 *давай*에서는 음성적 요소가 증감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적 변화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 (11)에서와 같이 호칭적 기능으로 사용될 때 *давай*는 부정형 혹은 동사의 직설법(1인칭)과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적 명령문에서의 문법화 현상은 통사적 환경변화와 의미적 탈색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문법적 수단의 범위는 형성하고자 하는 구조의 크기이다. 어떤 언어표현의 구조적 범위는 문법화가 일어날수록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석적 명령법에서는 구조적 범위가 감소된 양상을 볼 수 있다. 'to give'의 의미를 지닌 내용어 *давать*는 행위자, 수혜자, 물체의 논항을 지닌 동사이며, 'to cause'의 의미의 동사 *давать*는 행위자 명사구와 내포동사, 즉, 2개의 논항을 지닌 동사이다. 그런데 분석적 명령법에서는 주동사로 채워지는 1개의 논항 자리만을 열어놓고 있다. 3자리 혹은 2자리의 논항을 지닌 완전 내용어 동사로부터 한 자리만을 개방하는 기능적 범주로의 전이는 구조적 축소현상의 명백한 예이다: *дать* 'to give' (X, Y, Z) > *давай* (V), *дать* 'to cause' (X, Y) > *давай* (V).

- (14) *Давай поужинаем.* '저녁식사 하자.'
Давай дружитья. '친구가 되자.'

구조적인 축소는 의미적 변화를 동반한다. 위 예문은 통사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미적 환경도 변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초기의 의미들 'to give'와 'to cause'의 의미는 완전히 소멸되고 *давай*는 호칭적인 의미를 지닌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러시아어의 *дать*동사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i). *Дат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동사이므로 문법화의 환경을 제공한다.
- ii). *Дать*에서 피동형동사 *данный*가 파생되고, *данный*는 구조적, 의미적 변화를 수반한 문법화를 거쳐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 iii). 따라서 러시아어에는 영어의 'the'와 같은 형식적 문법적 범주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범주가 존재하게 된다.
- iv). *Дать*에는 2인칭 명령형 *давай*와 함께 존재하는 문법화 된 호칭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давай*가 있는데, 이 어휘에서도 구조적인 변화,

의미적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 v). 이처럼 *дать* 동사에서는 의미적인 탈색과 통사적 축소를 통해 내용이
가 문법적 기능어로 사용된다.
- vi). *Данный*와 *давай*는 양자 모두 문법화의 특징인 분기(divergence)
양상이 나타난다.

4. 한국어 *주다*의 문법화

4.1. 연쇄동사구문(SVCs)

한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서 연쇄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기동(1990), 안주호(1997), 이성하(2000) 등 한국의 여러 언어학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문법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 기여해 왔다. 4장에서는 이른바 조동사 구문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문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조동사 구문은 동사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때문에 연쇄동사구문(SVCs)이라고도 불린다:

- (15) 먹어 보다,
도와 주다,
있어 버리다

위의 예에서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보다*, *주다*, *버리다*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to see', 'to give', 'to throw away'를 각각 의미한다. 그런데 조동사로 사용되면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 'to try', 'to help', 'to finish'를 얻게 된다. 편의상 이러한 연쇄동사구문에서 차례로 첫번째 동사를 V1, 두번째 동사를 V2로 부르기로 한다.

SVCs는 구조상으로 보면 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구성소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속성은 문법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법화는 어휘적 요소가 형태소적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독립형태가 구속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Craig (1991)는 아래와 같이 두 단계의 문법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 (16) lexical form → free grammatical form → bound grammatical form
stage I stage II

첫 단계에서는 어휘적 형태가 독립적인 문법 형태로 발전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문법 형태가 구속된 문법 형태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동사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

- (17) lexical verb > verbal auxiliary > bound tense/aspect marker/clitic

위의 단계적 변화 과정을 거쳐 내용어는 보조어 혹은 기능어로 사용되며, 내용어의 원래 의미는 점진적으로 변하여 탈색되거나 소실되며, 접어는 항상 숙주(host)가 필요하므로 구에서 발견되던 느슨한 융합관계는 변화 말기에는 보다 강한 융합관계로 변하게 된다.

4.2. 보조동사 주다 와 문법화⁵⁾

주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연쇄동사구문을 중심으로 문법화를 살펴본다. 김종명(2002)에서는 보조동사란 원칙적으로 구문의 격틀과 의미역을 지배하지 않으며 자립성이 없고 본동사와 함께 문법적·어휘적 의미를 첨가해주는 동사라고 했다. 즉, 보조동사는 본동사의 논항구조와 의미구조를 계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동사에 대한 개념이다.

본동사로 사용되는 문장에서의 주다의 의미는 'to give'로, (18a)에서처럼 어떤 물체가 어떤 대상에게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사용된다. 반면, 주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구문에서는 의미가 'to give'가 아님을 (18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b)에서 *이혼해 주다*는 어떤 대상의 물리적인 이동이나 전달의 경로를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이혼한 것에 대한 수혜자가 이해될 뿐이다. 이러한 문장에서의 수혜자는 보통 언급되지 않고 생략되며 문맥을 통해 감지된다. 이처럼 연쇄동사구문의 보조동사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18) a. 영수는 영자에게/영자를 책을 주었다.
b. 영수는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해 주었다.

5) 4.2부분의 자료 일부는 2000년 담화인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앞 장에서 문법화가 일어나면 구조적인 크기도 감소된다고 언급했는데, 이 현상은 *주다* 보조동사 구문에도 적용된다. *주다*가 본동사로 사용되는 (18a)에서는 *주다*가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격표지와 대격표지가 할당되며, 여격표지는 다시 대격표지로 전환될 수 있어서 이중대격구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다* 보조동사 구문에서는 이중대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대격이 나타나면 (19b)처럼 비문이 된다.

- (19) a. 영수가 영자에게 험릿을 읽어 주었다.
 b. *영수가 영자를 험릿을 읽어 주었다.

이처럼 *주다*가 일반동사로 사용될 때와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격할당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상은 문법화 된 구문의 구조적 크기는 원래보다 감소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VCs 구조에서의 의미역 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SVCs에서는 V1이 문장의 의미와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V1이 주동사로 간주되며, 주동사인 V1이 명사구에 논항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 a. 영수가 역에 나와 주었다. (Goal)
 b. 영수가 더러운 집에서 살아 주었다. (Location)

(20a)에서 V1 *나오다*는 명사구에 Agent와 Goal역을 부여하고, (20b)에서 V1 *살다*는 Agent와 Location 역을 할당한다. V2 *주다*는 Goal이나 Location역의 할당과 관계 없음을 아래 예문(21a)와 (21b)가 비문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문 (21c)와 (21d)에서 보다시피 *주다*구문에 Goal이나 Theme역이 부여되었을 때도 비문이 된다.

- (21) a. *영수가 역에 주었다. (Goal)
 b. *영수가 더러운 집에서 주었다. (Location)
 c. 영수가 (*영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살아 주었다.
 d. 영수가 (*영자를) 더러운 집에서 살아 주었다.

예문 (21)의 비문법성은 V2 *주다*가 명사구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데에 무관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보조동사구문에서 의미역 할당은 V2가 아니라

V1이라고 잠정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조동사 *주다*가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타당한지를 다른 예들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한다.

- (22) a. 영수가 영자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Goal)
 b. 영수가 영자에게 식탁에 국을 놓아 주었다. (Goal)

(22)에서 사용된 예문들은 보조동사 *주다*가 *읽다*와 *놓다*를 본동사로 취하는 경우인데, 이 예문들은 모두 적격의 문장들이다. 이 예문은 V1이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가설에 반하여 보조동사 *주다*가 명사구에 Goal역을 수여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문장이 된다. (22a)와 (22b)에서 영자에게 부여된 Goal 역은 V1 *읽다*와 *놓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Goal 역은 V2 *주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22)와 같은 SVCs에서는 주동사 V1과 보조동사 V2 *주다*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지 모두 의미역 할당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⁶⁾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예문 (20)이나, 혹은 예문 (22)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주다* 보조동사구문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 예문의 *빌려 주다*, *들려 주다*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상이 감지된다:

- (23) a. 영수는 영자에게 책을 빌려 주었다.
 b. 영수는 영자에게 음악을 들려 주었다.

동사 *빌리다*와 *들리다*가 (24)에서처럼 단일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동사 *빌리다*는 [Agent, Source, Theme]역을, *들리다*는 [Theme]역을 할당하고, 각각 'to borrow'와 'to be heard'의 의미로 사용된다.

- (24) a. 영수가 영자에게서 책을 빌렸다. [Agent, Source, Theme]
 b. 소리가 들렸다. [Theme]

⁶⁾ *주다*가 goal 역을 할당하는지는 수혜자 존재법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 (i). 고객에게 요금부담을 {줄여 주다/줄여 드리다}.
 (ii). 당사의 생각을 {따라와 주셔서/*따라와 드려서} 다행입니다.

예문 (i)에서처럼 *드리다*가 *주다*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장에 goal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런데, (23a)의 *빌리다*는 'to borrow'의 의미가 아니라 'to len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Agent, Theme, Goal]역을 지니고 있다. (24a)의 *빌리다*가 [Agent, Source, Theme]을 지닌 것과는 달리 다른 의미역을 지니고 있으며 의미도 다르다. (23b)에서 V1 *들리다*는 동사 *들다*의 수동형이므로 명사구에 Theme 역만을 할당한다. (23b) *들려 주다* 구조에서 V1 *들리다*가 논항구조를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Agent나 Goal 역이 나타날 수 없는 데, 실제로는 Agent와 Goal역이 나온다. 그러므로 다른 *주다* 구조와 비교하여, *빌려 주다*, *들려 주다*의 경우는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특이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다*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5)

유형	의미	논항	Goal	특이성	예
A	V1	V1	no	no	먹여주다, 살이주다, 따라와 주다
B	V1	V1/V2	yes	no	읽어주다, 틀어주다, 줄여주다
C			yes	yes	빌려주다, 들려주다,

보조동사 *주다*는 문법화의 일반적 특성인 의미적 변화, 통사적 변화를 보여준다: *주다* 구조에서 *주다*의 원래의미가 소실되었다는 점에서 탈의미화를 논할 수 있으며, *주다*가 action verb를 취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용되므로 우리는 통사적 확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어 *주다*가 기능어인 조동사 범주로 사용되므로 탈범주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먹여주다, *살이주다*, *따라와 주다*와 같은 유형 A는 문장의 의미와 논항구조가 V1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다*는 goal역을 할당하지 않는다. *읽어주다*, *줄여주다*의 유형 B는 의미와 논항이 V1과 V2에 의해서 결정되며 *주다*는 goal역을 할당한다. *빌려주다*, *들려주다*의 유형 C는 의미와 논항에 있어서 특이한 속성을 보여준다.

(25)에서 유형 A는 (16)에서 언급한 Stage II에 속하며 본동사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되고 의미역 할당이 이루어지는 부류로서 *주다*는 완전조동사(true auxiliary)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유형 B는 (16)의 Stage I에 속하며 보조동사 *주다*가 Goal역을 할당하는 등 완전조동사화되지 않고 본동사로서의 일부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조동사(quasi Aux)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형 C는 문법화를 거쳐서 조동사화 되었으나, 계속해서 의미변화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다*는 보다 더 주변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그리고 담

화지향적인 의미로 되어간다.

5.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의 동사 *дать*와 한국어의 동사 *주다*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을 문법화 이론을 기조로 하여 논의했다. 두 언어에서 모두 자주 사용되는 동사 *주다*에서 발견되는 문법화 현상은 러시아어에서는 분사와 명령소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한국어에서는 보조동사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범주로 발전되었으나 문법화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즉 구조적인 변이, 의미적인 변이, 통사적 변화 등이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학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적은 두 언어의 특이한 언어적 속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문법화이론이 설득력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종명. (2002). 한국어의 동사(II): 한국어 동사의 통사론. *국어학의 이해*.
- 안주호. (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기동. (1990). Auxiliary verbs in Korean and subjectification. *ICKL* 7.
- 이성하. (2000).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정연우. (2005). 러시아어 동사 시제 체계의 문법화. *언어과학연구* 35, 241-251.
- 최현배. (1955/1983).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추석훈. (2006). The old Russian copula *byti* 'be' and the auxiliary *byti* 'be': one lexeme or two? *언어과학연구* 36, 273-296.
- Cabrera, Juan C. Moreno. (199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n Ramat & Hopper (Eds.).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pp. 211-228). John Benjamins.
- Craig, Collette. (1991). Ways to go in Rama: a case study in poly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pp. 455-49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vo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s. In Traugott &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pp. 149–18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ine, Bernd &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opper, Paul & Elizabeth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illet, Antoine. (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Reprinted in Meillet 1948:130–48.
- Ramat, Anna Giacalone. (1998). Testing the boundaries of grammaticalization. In Ramat & Hopper (Eds.),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pp. 107–128). John Benjamins.
- Ramat, Anna Giacalone & Paul J. Hopper (eds). (1998).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 Traugott, Elizabeth Closs & Bernd Heine. eds. (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이희숙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번지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러시아어전공
전화: (053)850-3389
이메일: hsr21@hanmail.net

Received: 30 March, 2008

Revised: 5 June, 2008

Accepted: 12 June, 2008